

한국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의 학사경고 극복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이민지** · 김동민*** · 진성미**** (중앙대학교)

국문요약

이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대학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적·상담적 시사점을 얻고자 그들의 학사경고 경험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참여자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그들의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를 분석한 결과, 57개의 개념과 23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 결과, 중국인 유학생들은 ‘무면도강동(無面渡江東: 일을 실패하여 고향으로 돌아갈 면목이 없다)’이라는 중심현상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심리적·물리적 좌절이 중국인 유학생들의 학사경고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으로 작용하였으며, 심리적인 준비와 학업적 준비의 부족이 학사경고경험 과정에서 경험하는 인과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중심현상에 대한 참여자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나의 책임에 대한 자각’으로 나타났으며, 이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 조건은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지지 자원의 유무에 따른 학업 적응 속도 차 경험’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연구 참여자들은 ‘변화에 대한 만족’과 동시에 ‘노력의 지속’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학사경고 극복의 유형은 크게, 독자적 해결 유형, 도움추구 유형, 미해결 유형 등 세 가지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적시적소의 상담과 학습지원이 긴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입학초기에 집중된 멘토링이나 지원을 확대하여 중국인 유학생들의 학업 적응에 필요한 사회적 지지 체계를 구축하여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는 것이 그들의 학업 적응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학사경고, 학사경고 극복경험, 중국인 유학생, 질적 연구

I. 서론

한국으로 오는 중국인 유학생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의 중도탈락은 그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과 상담의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2018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430개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위과정을 밟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은 68,537명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인 유학생의 약 5%(1,454명)가 매년 중도탈락하고 있다(교육부, 2018). 이는 2017년 기준 학위과정 중국인 유학생은 30,650명이었으며, 중도탈락 학생이 1,151명이었던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3079318).

* 이 논문은 이민지(2019)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제1저자, 학생, lovelove77ss@cau.ac.kr

*** 공동저자, 교수, dminkim@cau.ac.kr

**** 교신저자, 교수, sungmi@cau.ac.kr

것에 비해 그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가까운 거리와 경제적 비용 및 한류 열풍의 효과로 한국의 인지도가 높아진 점을 고려함과 동시에 자신의 진로를 확장시키고 미래의 직업을 위한 실력을 갖추기 위해 한국 유학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정은이, 2009; 허형원, 손은령, 2011). 그러나 다수의 재한 중국인 대학생은 한국으로의 이주 후 급격한 문화적 차이와 대학생활에서 오는 부적응을 겪음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학업성취에서 만족하지 못하며, 우울, 불안, 외로움 등 정서적 어려움도 경험하고 있다(박은미, 황병의, 정태연, 2010).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에는 휴학을 하거나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업 중도탈락 경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홍월, 2017).

재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중도탈락을 객관적으로 예측해 줄 수 있는 변인에는 학사경고 경험 여부가 있다(전호정, 2017). 학사경고제도는 학생들이 각 대학에서 정한 일정 수준 이하의 학점을 받으면, 대학으로부터 일련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반복해서 학사경고를 받을 수록 점차 대학으로부터 받는 제재의 수준이 높아지며, 심한 경우에는 제적될 수 있다(김명찬, 2013). 실제로 학사경고를 받아 중도탈락을 하는 학생들의 수 역시 매년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 2011년 서울 소재 25개 대학에서 총 25,407명의 학생이 학사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그 중 1,352명은 제적된 것으로 알려졌다(전보라, 강승희, 윤소정, 2015). 중국인 유학생의 증가 추세를 고려해봤을 때, 1,352명 중 적지 않은 수의 중국인 유학생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정확한 수는 파악할 수 없다. 이렇듯 상당수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학사경고로 인한 중도탈락 위기에 봉착하고 있지만 그에 대해 알려진 것들은 많지 않다(전재은, 2016).

대학생들의 학사경고 경험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한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장애경, 양지웅, 2018)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중국인 유학생들의 학사경고 경험과 동일하게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대학생들이 겪는 대학에서의 일반적인 학업적응의 어려움과 더불어 외국인으로서 겪는 문화적응 및 언어적·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학사경고 경험은 한국 대학생의 경험과는 다른 성격의 어려움들을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 논문에서는 대학 내 소수집단의 학업적응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중국인 유학생의 학사경고 경험을 다룬 연구는 아직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학사경고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 원인을 어떤 것으로 지각하는지 중국인 유학생의 관점에서 학사경고 경험의 의미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또한 학사경고 경험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는 학사경고 이후의 대처 방식과 인과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이유로 학사경고 이후의 대처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방법을 활용하여 학사경고 경험이 중국인 유학생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재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학사경고 경험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동원하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학업적응을 위해 필요로 하는 교육적·상담적 지원에 관한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인 유학생들은 학사경고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둘째, 그들은 어떠한 상호작용 전략을 활용하여 학사경고를 극복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이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크게 한국인 대학생들의 학사경고 경험에 대한 연구들과 중국인 유학생들의 학업 적응에 관한 두 가지 주제로 검토하였다.

먼저, 학사경고를 경험한 한국인 대학생들의 특성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적 특성으로 사전학습이 부족하거나 기본적 학습 역량이 부족하다. 또한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읽기·쓰기 능력이 부족하며, 수업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특징을 보인다(이용진, 양현정, 조성희, 2017).

둘째, 정서적 특성으로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이 낮으며(임이랑, 2016), 내적인 학습동기가 낮고(천주명, 권민혁, 한영숙, 임영진, 2014), 스트레스에 취약하다(Tovar & Simon, 2006). 그리고 불안, 우울, 무력감, 수치심과 같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훈병, 2016). 이러한 심리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전공에 대한 불만족을 느끼며, 진로와 적성이 맞지 않아 대학생활의 부적응을 경험하기도 한다(강순화, 이은경, 양난미, 2000; 이지희, 신효정, 2017).

셋째, 행동적 특성으로 학사경고 자가 가지고 있는 불규칙한 학습습관에 대한 것들이 많다. 이들은 예습·복습과 과제, 시험 등과 같은 학습활동을 하는 시간이 성적우수자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한덕웅, 이정성, 2000). 특히, 잦은 지각과 결석으로 방만한 수업태도를 야기하며(강순화, 이은경, 양난미, 2000; 임이랑, 2016), 고등학교와는 달리 대학생활에서 늘어난 자유 시간을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영옥, 이대형, 2016; Balduf, 2009). 늘어난 자유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아르바이트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 공부하는 시간을 뺏기는 경향을 보였다(황현우, 2018). 또한 사회적 지지 자원이 부족하여(강순화, 이은경, 양난미, 2000; 이용진, 양현정, 조성희, 2017; 황현우, 2018), 학사정보 수집 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황현우, 2018). 또한 학사경고 자는 스트레스 및 위기 대처를 소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 높은 신체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이용진, 양현정, 조성희, 2017).

마지막으로 환경적 특성에서는 낮은 가족의 사회 경제적 지위, 경제적 어려움이 학사경고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학교 정책 및 서비스 역시 학사경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임이랑, 2016; 황현우, 2018; Tovar & Simon, 2006). 특히, 국외 연구들에서는 인종 등도 학사경고의 원인으로 확인되었다(Mavis & Doig, 1998).

한편, 중국인 유학생의 증가와 더불어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학업 적응과 관련된 연구들도 많아지고 있다.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학업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인 유학생들은 학업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토론과 발표 중심의 수업, 보고서 작성, 중국과 다른 한국의 교육시스템, 전공 한국어의 장벽 등으로 인해 한국 대학의 학업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밝혀졌다(신선희, 유문무, 2014; 왕월, 2008; 이수정, 2011). 이러한 학업 적응에서의 어려움은 학업 스트레스를 야기하며, 학업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상효경, 2013).

둘째, 중국인 유학생들의 경제적 요인(물가나 생활비)은 학업을 저해하는 요인과 상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허혜영, 2014). 대다수의 중국인 유학생들은 학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장시간의 아르바이트로 인해 학업에 투자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밝혔다(신선희, 유문무, 2014; 하정희, 2008).

셋째,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에서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클수록 학업중단의도가 높아지는 것이 밝혀졌다(왕월, 2008; 허혜영, 2014). 사회주의 사회에서 자란 중국인 유학생들이 자본주의 사회인 한국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며(리통, 2009), 한국에서 강조하는 위계질서나 상하관계, 예의존중 등의 가치관에 낯설어한다고 하였다(신선희, 유문무, 2014).

넷째,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 부족은 학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해 공부에 대한 열의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강의에 참여도가 떨어지고, 심지어는 출석을 하지 않기도 하였다(강이화, 김아영, 김대현, 2007; 신선희, 유문무, 2014; 허혜영, 2014). 그러나 김해경(2016)의 연구에서는 한국어 능력이 학업중단의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한국어 능력 부족이 학사경고 경험에는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중국인 유학생들의 학업 적응에 있어 교수와의 관계가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밝혀졌다(이해연, 2007). 중국인 유학생들은 영어강의에서 교수의 배려는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주휘정, 2010), 교수가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해 무관심 또는 책임감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불만을 표하기도 하였다(정경희, 김영순, 2018). 그러나 김해경(2016)의 연구에서는 교수와의 상호작용이 학업중단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중국유학생의 학업적응에 여러 요인들이 관련되고 맥락적 조건들이 다르게 작용함을 시사하며, 이에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수와의 상호작용이 어떠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섯째, 대학에서 형성된 동료관계가 긍정적이고, 대학성적이 우수하고 대학에 만족할수록 학업중단의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김해경, 2016). 대다수의 중국인 유학생들은 팀 프로젝트에서 한국인 학생들이 이문화 개방성 및 인내심 부족으로 외국인 학생들을 소외시킨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심리적 불편함을 호소하였다(정경희, 김영순, 2018; 주휘정, 2010).

일곱째, 중국인 유학생들은 대학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교육행정서비스의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정경희, 김영순, 2018), 장학금 지원 외 학습과 관련된 안내나 정보를 제공해주는 부서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임춘희,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생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학업중단의도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김해경, 201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인 유학생들의 학업적응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그들의 학업 적응을 저해하는 변인에 관심을 두어왔다. 선행연구 결과들에 비추어볼 때, 중국인 유

학생들은 한국의 학업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들의 한국 고등교육 환경에서의 학업적응은 한국인 대학생들과 다른 여러 맥락적인 조건들이 관여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학업에 적응하지 못했던 중국인 유학생들이 어떻게 학업 적응을 이루어가는지, 그 과정에 어떠한 맥락적 조건들이 작용하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유학이라는 새로운 학업환경에서 받은 학사경고 경험이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해 그들의 관점에서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이 연구는 연구 목적에 맞게 재한 중국인 유학생들 중 학사경고 경험이 있으며, 현재 학사경고를 극복했다고 스스로 인식하는 학생들로 제한하였다. 또한 중국인 유학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漢)족 대학생으로 한정하였으며, 학사경고 경험이 비교적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으로 기준을 정하였다. 특히, 서울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의 성비가 약 7:3(여학생: 남학생) 비율로 이루어져 있어(교육부, 2018), 이를 고려하여 참여자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면담 과정에서 일부 남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탈락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는 8명(남자 1명, 여자 7명)으로, 서울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며, 학사경고를 1회 이상 받은 중국인 학생들이었다. 연령은 23~27세 사이에 분포되어 있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3학기 이상 대학 과정에 재학하고 있었다. 거주형태를 살펴보면, 6명은 자취생활을 하고 있으며, 한 명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가족과 함께 살다가 현재는 친구와 살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모집은 서울 소재 각 대학교의 중국인 유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모임을 통해 이루어졌다. 중국인 유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모임은 매일 많은 수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서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공간이다. 이에 학사경고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자연스럽게 노출하여 연구에 참여하도록 동기화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이러한 접근이 유용한 이유는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들은 이를 주변에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정애경, 양지웅, 2013),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대학행정조직에서 관리하는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4명의 연구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 신청을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We-chat(스마트 폰 용 무료 통화·메신저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설

명하였다. 또한 적합한 대상자인지 사전 확인 작업을 거친 후 면담에 참여하도록 안내하였다. 이 후 참여자의 주변에서 관련 대상을 직접 찾았으며, 추가적으로 구성된 연구 참여자는 4명으로 기존의 연구 참여자와 동일하게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안내 및 사전 확인 작업 후 면담을 진행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 개요

대상	전공	학년	성별	나이	형제유무	대학 입학한 해(年)	학사경고 횟수	거주형태
1	영화학과	4학년	여자	25세	외동	2016년 3월	1번	자취
2	국문학과	2학년	여자	23세	외동	2017년 9월	1번	자취
3	경영학과	3학년	여자	23세	여동생1	2016년 9월	2번	자취
4	경제금융학과	4학년	남자	25세	외동	2015년 9월	1번	자취
5	심리학과	수료	여자	27세	외동	2012년 9월	3번	자취
6	중문과	4학년	여자	24세	여동생1	2015년 9월	2번	가족거주
7	경영학과	3학년	여자	24세	언니1	2016년 9월	2번	자취
8	심리학과	수료	여자	25세	여동생1	2014년 3월	2번	친구거주

2. 자료 수집과 분석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은 참여자들에 대한 반구조적인 심층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반구조적인 면담 질문지는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전문가 검토를 토대로 완성하였다. 최종면담 질문은 연구 문제에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주요 면담 질문은 “학사 경고를 받았던 경험을 자세히 묘사해주세요.”였으며, 면담 내용에 따라서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한 경우, 다른 부가적 질문들을 질문을 사용하였다. 특히 경험에 대한 해석과 언어 차이로 인한 연구자의 제한된 이해를 극복하기 위해 “학사경고의 의미를 OO이라고 말씀하셨는데, OO의 의미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등의 확인 질문들을 사용하였다.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녹음기, 면담질문지, 동의서, 연구 과정노트 등을 활용하였다. 특히, 면담 자료의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어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대화내용에서의 핵심내용은 연구과정노트에 가능한 즉시 기록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9월에서 12월까지 약 4개월간 이루어졌으며, 면담 소요 시간은 회당 약 60분~90분이었다. 면담 횟수는 개인별로 1~2회로 하였고, 면담 장소는 연구 참여자가 편한 장소를 우선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원 자료를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면담은 한국어로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참여자가 한국어로 마땅히 표현할 단어를 찾지 못하거나 어려운 표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전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전사한 면담 자료의 분량은 참여자 한 사람 당 A4용지 25~30매정도 되었다.

〈표 2〉 면담 질문 가이드

분류	주요 내용 (개인별 진행에 따른 심화 질문 예)
1 연구 참여자 인적사항	이름, 성별, 소속(학교, 단과대학, 전공), 입학한 해, 재수 여부, 나이, 학사경고 횟수 및 학기, 제적 및 재입학 여부, 거주형태, 부모님의 직업,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선행학습경험 등
2 대학 입학 전 경험	학업성취수준 및 학습 양식, 중국대학입시, 진로목표의 구체화 수준, 자기효능감, 한국유학에 대한 기대, 한국유학 동기, 진로결정과정에서의 의미 있는 타자
3 대학 입학 직후 경험	대학 입학, 전공, 학업성취, 대인관계, 한국유학에 대한 기대와 기대에서 만족/불만족 경험, 학사경고 전 학업과 관련하여 좌절했던 경험, 새롭게 생긴 기대
4 학사경고 경험	학사경고 해당 학기 연구 참여자의 인식과 경험(일상생활, 대인관계, 학교, 학과, 전공, 학업, 아르바이트, 세상 등), 학사경고 받은 학기와 아닌 학기의 차이, 학사경고의 원인에 대한 인식, 학사경고 후 변화한 자기 개념, 타인, 세상에 대한 인식, 학사경고 후 대처 행동, 학사경고 후 도움이 된 점/어려운 점, 학사경고 후 학업적응, 학사경고 후 도움요청, 학사경고의 의미
5 현재 상황과 기대	미래 진로 계획, 학사 경고 후 학업적응에 대한 만족도, 학사경고의 사전 예방 방안, 주변의 후배가 학사경고를 받았다면 주고 싶은 조언, 타 대학타 전공에 대한 인식 확인
6 마무리	면담 소감 나누기, 학사경고의 사전 예방 방안

이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의 학사경고의 의미와 학사경고를 극복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과 조건을 탐색하기 위해 근거이론 방법(grounded theory)을 분석의 틀로 활용하였다. 근거이론 방법은 심층면접, 일기나 비망록 등의 개인 메모, 참여관찰 기록 등을 통해 수집된 경험 자료를 사용하여 개인이 처한 현실에서의 사회 심리적 문제, 대처전략, 변화과정을 밝히는데 유용하다(Strauss & Corbin, 1994). 자료 분석 절차는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개방코딩(open coding), 축 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 순으로 진행하는 분석절차를 따랐다. 1단계, 개방코딩 과정에서는 전사한 면담 내용을 한 줄씩 읽고 분석해 가는 줄 코딩 분석을 하며, 의미가 있거나 흥미로운 진술이라고 판단이 되는 개념에는 이름을 붙였다. 또한 서로 다른 자료끼리 지속적인 비교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해보고, 자료의 차이점이 생긴 원인과 결과도 함께 비교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이름 붙여진 범주들을 연결시켜 체계적으로 묶일 수 있도록 하였다. 2단계, 축 코딩 과정에서는 하나의 개방코딩(중심현상)을 선택하여 그것을 이론의 중심 특성으로 삼아 중심 현상을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구조와 과정을 하나의 도식으로 개념화하였다. 이 때 구조와 과정은 근거이론의 패러다임(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에 따라 개념화 하였다. 3단계, 선택적 코딩은 범주들을 통합하고 정교화 시키는 과정으로 축 코딩에서 만들어진 패러다임의 범주들을 연결하여 가설들을 형성시키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8). 이러한 분석절차를 통해 최대한 많은 자료를 분석 결과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그렇지 못한 자료는 반복적인 검토를 통해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중국인 유학생들이 경험한 학사경고 경험의 의미에 대해 그들의 면담 내러티브를 자료로 하여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 분석과 과정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각 범주 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계를 유형화하였다.

3. 연구의 신뢰가능성 및 타당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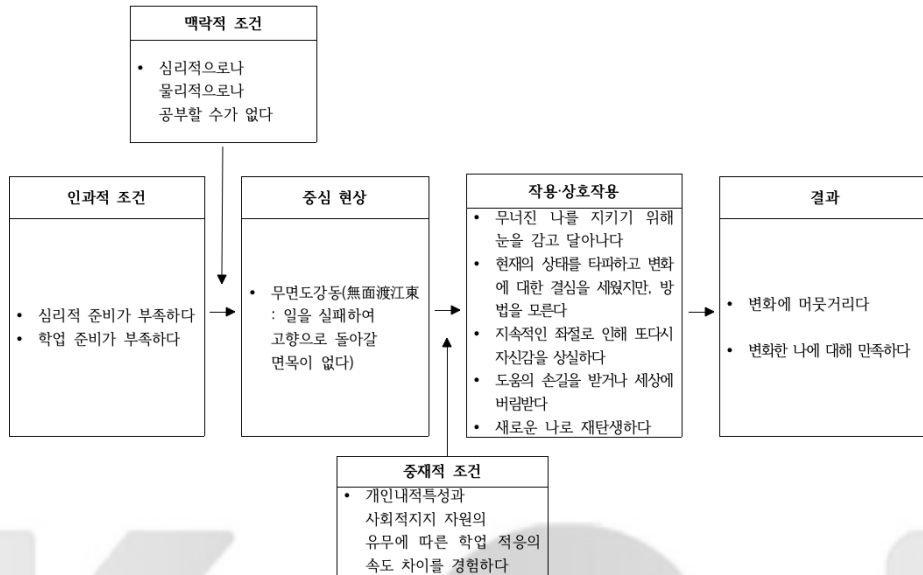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로서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의 방법들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상담심리전공 교수 1인과 질적 연구 전문 교수 1인 및 상담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1인에게 연구 설계, 자료 수집 및 분석, 결과 해석에 이르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자문과 피드백을 받았다. 이를 통해 연구절차와 자료 분석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편견을 배제하고 연구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둘째, 자료출처의 다원화 전략을 선택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였다(Denzin, 1978). 면담, 관찰 및 기타 공식 문서 등을 수집하여 자료 분석에 포함하였다. 면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수업시간을 포함한 학교생활에서 교수와의 관계가 소극적이라고 언급한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실제 전공수업에 연구자가 참여하여 중국인 유학생과 교수와의 관계를 관찰을 하였다. 관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부분은 수업에서 교수와 중국인 학생간의 언어적인 소통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소통조차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에서 학사경고장을 방학기간에 우편물이나 이메일로 발송하여 학사경고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개인이 직접 학교로부터 받은 학사경고장을 요청하였다. 이렇게 확보된 학사경고장은 학교에서 중국인 유학생의 부모님에게 보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로만 작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이 연구는 참여자 확인(member checking; Lincoln & Guba, 1985) 과정을 거쳤다. 즉, 1차로 분석된 예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참여자를 직접 만나거나 위챗(We-Chat)을 통한 소통 방법으로 해당 참여자에게 보여주고 의견과 피드백을 받았다.

Ⅲ. 중국인 유학생이 인식한 학사경고 경험의 의미와 극복 과정

중국인 유학생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들의 학사경고 경험의 의미와 학사경고를 극복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과 조건을 탐색한 결과, 총 57개의 개념, 23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중국인 유학생들의 학사경고 경험에 대한 범주 분석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참여자들이 경험한 학사경고 극복과정을 유형화하여 기술하였다.

1.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 분석

중국인 유학생들의 학사경고 경험에 대한 면담 자료 분석 결과 도출된 중국인 유학생들의 학사경고 극복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먼저 중심현상으로 드러난 주제를 제시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 인과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중재적 조건, 결과 순으로 요약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중국인 유학생의 학사경고 극복 경험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1) 무면도강동(無面渡江東): 중심현상

중심현상은 중심생각이나 사건을 말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중심현상은 “무면도강동(無面渡江東: 일을 실패하여 고향으로 돌아갈 면목이 없다)”이었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반복되는 학사경고로 인해 자신의 부족한 능력을 직면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는 달리 수치심을 경험하였다. 또한 누적된 학사경고로 인해 제적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원치 않는 퇴학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걱정과 두려움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은 믿었던 나의 능력이 무너지고,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에서 비롯되었다.

“유학을 가기 전에 대학을 가는 게 저한테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실패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엄청나게 컸어요. (중략) 나는 꼭 좋은 대학을 가서 졸업을 해야지...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제일 컸어요... 대학졸업은 저의 10대 때의 목표예요. 대학졸업 해야 제가 제 자신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를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인거죠. 그래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그랬죠. 제 자신이 망가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스스로 무너지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러면 내 학교생활이 어떻게 될지 두렵고 무서웠어요.” (참여자 5)

“세 번째부터는 안돼요. 세 번째 받으면 중국에 가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경고 받으면 학부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들어있어요. 당황했어요. 너무나 무서웠어요. 아마 한 번 더 받으면 정말 한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중략) 부모님은 정말 1년 동안 돈도 많이 주고, 관심도 많이 주셨는데 안 좋은 결과 받아서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요. (중략) 대학 졸업이 저한테는 너무 중요하

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부모님은 중요하게 생각해요. 부모님은 대학교 안 가면 좋은 취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대학교는 꼭 졸업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절대 말하면 안돼요.” (참여자 7)

2) 심리적/물리적 좌절: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사회, 문화적 배경을 말한다(Strauss & Corbin, 1998). 참여자들의 학사경고 경험에서의 맥락적 조건은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공부할 수가 없다’, 심리적/물리적인 좌절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대학교에서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인 대학생들에게 배제되고, 무시당하는 경험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교수님들이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무관심하다고 느끼며, 이에 적대감을 느꼈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각기 다른 목적을 지니고 아르바이트를 시도하였지만 아르바이트로 인해 몸을 무리하게 사용하여 피로함을 느꼈고, 이로 인해 학교를 가지 않거나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중국인이랑 한국인이랑 사이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중략) 저희가 2학년 때 같이 과에서 XX전주영 화제를 갔었거든요. 저희 그때가 과 통합 항의를 했었거든요. 그거를 약간 버스킹 같은 것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도 참여하고 싶은데. 저도 00과니까. 근데 그 활동이 저희가 되게 남 같았어요. (중략) 되게 기분 나빴어요. 진짜 속상했어요.” (참여자 1)

“약간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도 사실 많아요. 심지어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친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중국인 학생인 줄 모르시고 뒤에서 다른 교수님과 이야기를 하시는데. 중국 학생들 그냥 F 주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충격적인 것이예요. 그래서 제가 성적이 나쁘나 싶었어요. 저는 모르잖아요. 공개를 안 하니까.” (참여자 5)

“지난 학기 알바를 3개 했거든요. 하루에 4시간만 자요. (중략) 한 4개월 동안 800만원 벌었어요. 그런데 그거 벌었는데 몸이 너무 힘들어지고, 아무리 쉬어도 피곤이 안 풀렸어요. (중략) (학사경고 받은 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열심히 공부하자. 어차피 열심히 공부하면 4.0 넘으면 전액 장학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학기 알바 안하고 공부만 집중하고 있어요.” (참여자 2)

3) 심리적 준비 및 학업 준비의 부족: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중심현상이 발생하도록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과 조건을 말한다(Strauss & Corbin, 1998). 이 연구에서는 ‘심리적 준비’와 ‘학업 준비’의 부족이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공통적으로 타국에서의 자율성 상실과 타인에 의한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생으로서의 기본적인 학업 수행을 소홀히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일부 참여자들은 입학 후 처음 접하는 대학에서의 학습으로 인해 혼란함을 느꼈다. 특히, 참여자들은 대학에서의 학습에 필요한 정보(온라인 수강신청 등)와 능력(한국어 외 외국어 능력, 컴퓨터 사용 능력 등)을 모르는 상황에서 발표 자료 작성과 같은 능력에 있어 한국인 대학생들과의 차이를 절감하여 더욱 더 소극적인 태도로 수업에 임하게 되었다.

“1학기 때는 그냥 나는 공부하고 그냥 놓고 그러면 된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다녔어요. 생활에 대해서 별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아주 여유롭게 지냈어요. (중략) 뭐 더 잘 해야겠다 그런 것은 없었어요.”
(참여자 8)

“아빠가 잠수를 탔어요... 그냥 맘 편하게 유학 가라고 생활비를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사람이 없어진 것이에요.... 극복 못했던 것 같아요. (중략) 처음에 강의계획서 있는 것도 모르고... (중략) 수강신청 때부터 막혔죠. 이런 시스템 자체가 중국에 없거든요. 우리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구나. 학교에서 정해주지 않는 것이구나. (중략) 반(class)이 없네... 혼자서 들어야 하는 거였어요.”
(참여자 5)

“ppt랑 강의가 다 영어로 하는 수업이 어려워요. 영어를 잘 못해서 어려워요... 영어 능력 있어야 하는지 몰랐어요.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유학 전에 정말 많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 능력 초과했어요.”
(참여자 7)

“한국 친구들끼리 팀플하면 저는 엄청 힘들었어요. 한국 학생들이 아예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중략) 그래서 같이 팀플 할 때도 가만히 있고. 아예 안했어요.”
(참여자 3)

4) 나의 책임에 대한 자각: 작용·상호작용

작용·상호작용은 중심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들을 말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무너진 나를 지키기 위해 눈을 감고 달아나다’, ‘현재의 상태를 타파하고 변화에 대한 결심을 세웠지만, 방법을 모른다’, ‘지속적인 좌절로 인해 또 다시 자신감을 상실하다’, ‘도움의 손길을 받거나 세상에 버림받다’, ‘새로운 나로 재탄생하다’로 나타났다. 일부 참여자들은 학사경고를 받은 후 참여자들은 학사경고 받은 사실을 외면하기도 하며, 학사경고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기보다는 외부적 요인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학사경고라는 사건으로 낮은 학업 성취 결과를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대학 졸업을 위해 변화를 해야 한다는 결심을 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어떻게 변화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을 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학습에서 변화하기로 결심을 하였지만 마음뿐이었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으며, 새로운 공부 방식(태도)에 대한 시행착오를 경험하였다. 심지어 자신의 노력이 성적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아 또 다시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자신감마저 상실하게 되는 경험을 맞이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여자들은 주변에 학사경고 사실을 털어놓음으로 인해 기대했던 공감과 도움을 받기도하고, 기대했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결국, 참여자들은 학사경고가 그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책임임을 깨닫게 되고, 새로운 공부 방식(태도)에 대한 시행착오마저도 자신의 경험을 수용하여 새로운 나를 맞이하였다.

“그 때는 하고 싶은 것도 많았어요. 이렇게 학교 시간 낭비인거예요. 이렇게 하면 의미 없다. 이렇게 졸업을 하고 나면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죠. (중략) 바리스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베이징에서 한 달 반 정도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뒀어요. 여름방학기간에. 그래서 자격증을 따서 좋은 데 한편으로는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회피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격증을 뒀는데 기분이 좀 애매해요.” (참여자 5)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생각은 그런데.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참여자 3)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랬던 거죠. 대부분 제가 계획을 못 잡고 제가 더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중략) 제일 큰 부분을 보자면 자기가 자기를 못 챙긴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서 책임지기 시작했어요. 혼자에 대한 책임. (중략) 일단 졸업을 해야지. 라는 책임감이 생겼어요. 졸업에 대한 책임감. 내가 할 일 한다 해도 졸업을 못할 것 같아서 더 잘해야겠다.”

(참여자 8)

5)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지지 자원에 따른 학업 적응의 속도 차: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인과적 조건과 맥락적 조건이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고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Strauss & Corbin, 1998).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내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 자원의 유무’에 따른 학업 적응의 속도 차이 경험이 중재적인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참여자들의 학업 적응을 빠르게 도와주는 개인내적 특성과 사회적지지 자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내적 특성에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며, 문제를 작은 일로 바라보는 태도를 언급하였다. 둘째, 전공 혹은 복수전공에 대한 기대와 흥미가 생겨 그 수업에 관심이 가게 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셋째, 참여자들은 교수님들이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경우 친근함을 느껴 수업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학교의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및 종교기관의 적극적인 지지로 인해 참여자들은 학사경고 경험에서 비교적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저는 친구랑 만나서 술 마시면 다 해결 돼요. 그냥 상태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지면 이 일을 작은 문제로 생각해요. 저는 성격이 좋아서 저랑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후배들이 많아요.”

(참여자 8)

“우리 학과는 중국 유학생한테 관심이 많은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이 중국에서 취업했었어요. (중략) 그 교수님 수업 할 때, 중국어를 써도 돼요. 전문적인 용어 이런 것 모를 때 중국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중국어로 수업을 가르치면 성적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자 4)

“친구가 저를 데리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중략) 그 한 학기 동안 그 친구랑 똑같은 수업 들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만나고 수업 같이하고 숙제도 같이하고 과제도 같이했어요. (중략) 너 이렇게 자기 포기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네가 자기를 포기하면 누가 너를 구해줄 수 있냐고 이렇게 많이 말을 해주고 그랬어요.” (참여자 1)

반면, 참여자들의 학업 적응을 오히려 더디게 하는 개인 특성과 사회적 지지 자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수의 참여자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렸다. 그로 인해 불안감을 야기하며, 스트레스 역시 과도하게 느끼고 있었다. 둘째, 일부 참여자들은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성격이 강해, 홀로 해결하려는 태도로 인해 유학생생활에서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경험하였다. 셋째, 소수의 참여자는 의존적인 성격으로 대인관계의 갈등 여부에 따라 학업적응이 크게 달라졌다. 의존적인 참여자는 주변의 사회적 지지의 반응에 따라 학업 실패와 적응을 더 크게 경험하였다. 넷째, 일부 참여자들은 “잘하지 못함”에 대한 불안이 높아 실패를 회피하려는 성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 문제를 더욱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입학 전 전공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실제 대학에서 수업을 듣고 실망감 및 당혹감을 느꼈다. 여섯째, 일부 참여자들은 지도 교수와의 교류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일곱째, 참여자들은 기대했던 유학생생활과 달리 초기 유학생 생활에서 한국과 중국의 문화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느꼈다.

“F를 받으면 그 교수님은 나쁘지 않고 제가 정말 잘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중략)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나 아마 이번 학기도 장학금 30% 받을 수 있어요.” 아 뭐야? 이런 것 비교는 더 마음이 좀... 약간 똑같이 한국에 와서 똑같은 수업을 받고, 똑같은 경험을 하는 데 왜 친구는 더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 저는 왜 이런 것 할 수 없는지. 자꾸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마 저한테 난 안될 것 같아. 자책하는 느낌. 학사경고도 힘들고, 또 이런 부담이 많아서 스트레스 너무 많아요.”

(참여자 7)

“제가 대인관계에 대해 되게 예민한 편인데. (중략) 지금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한테 저를 구해 준 건 당신이라고. 여태까지 버틸 수 있었던 힘은 그 친구였던 것 같아요. (중략) 제가 장학금 받은 학기도 그 친구랑 공부를 했어요. 저는 2, 3학년 때 그 친구랑 붙어있었어요. 밥도 같이 먹고 수업 이야기도 많이 하고. (중략) 솔직히 공부하기보다는 친구 관계를 더 신경 쓰였던 것 같아요.”

(참여자 1)

“지도교수 누구인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랑 면담해도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자신이니깐. (중략) 지도 교수님 이름만 적혀 있는데. 그런데 연락처도 없고, 연구실도 안 쓰여 있어요. 이름만 적혀 있으면 누가 알아요?”

(참여자 3)

6) 변화에 대한 만족과 노력의 지속: 결과

결과는 중심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의도되었든 아니었든 상관없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Strauss & Corbin, 1998). 이 연구에서는 ‘변화에 대한 만족’, ‘계속 노력을 이어가기’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공부 방식을 바꾼 후 자신감이 상승하였으며, 자기조절 능력이 향상되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참여자들은 학사경고 이후 성격이 스스로 변화했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변화된 성격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일부 참여자들은 대체로 변화에 만족은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수준으로 학습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공부 방식을 아직까지 찾고 있는 모습들을 보였다.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그런데 너무 많아서 어디부터 물어봐야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요. 한 관문을 통과를 했지만 두 번째 관문을 어떻게 통과해야 될지 몰라요. (중략) 그렇게 만족하지는 않아요. A+ 줘도 제가 이 수업에서 뭘 배운 것이 없고 제가 아는 것이 없으면 전 만족하지 않아요.” (참여자 3)

“학사경고의 의미를 말하자면 약간 저를 더 우수하게 만드는 그런 것 같았어요. 학사경고가 없었다면 다 C받고 그냥 졸업 하면 되는 거였는데. 학사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더 잘 할 수 있고. 더 잘 하면 더 좋은 나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더 우수해졌다는 그런 것 느껴요... 확실히 제가 3년 동안 바뀌었다는 것을 느껴요.” (참여자 8)

“제가 입학할 때부터 제가 솔직히 내향적인 성격이고, 제가 친구들과 인사도 조금조금하고 되게 뭔가 크게 문제가 없지만 친하지도 않고 그랬어요. (중략) 친구가 저한테 항상 이야기 하는 데 저보고 변했다고... 그 친구가 저를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폐증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중략) 뭔가 밝아진 느낌. 그런 것 같아요.” (참여자 1)

2. 학사경고 극복의 과정과 유형

중국인 유학생들은 학사경고 경험 후 어떠한 상호작용 전략을 활용하여 극복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과정 분석과 유형 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먼저, 과정 분석은 현상에 대한 반응 및 대처에 관련되는 작용·상호작용의 순차적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과정분석을 통해 중국인 유학생들이 학사경고 경험 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반응과 대처를 했는지 알 수 있었다. 또한, 유형 분석은 자료의 가설적 정형화와 관계진술의 결과를 토대로 각 범주 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계를 유형별로 정리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각 참여자들의 사례에 나타난 학사경고 극복의 특징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유형을 나눌 수 있었다.

1) 학사경고 극복 과정

학사경고를 경험한 중국인 유학생의 극복과정은 참여자별 차이는 있지만 대개 회피 단계, 반성 및 갈등 단계, 재조정 단계, 실천 및 통합 단계를 거쳤다. 회피 단계는 참여자들이 학사경고 받은 사실에 대해 스스로 합리화 하거나 애써 외면하고, 회피하는 경험을 하는 시기를 의미한다. 참여자들은 중국에서의 입시 실패와 중국대학에서의 부적응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거리가 가까우며, 경제적 비용이 적게 드는 한국 유학을 선택하였다. 그들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접한 한국의 대학생생활을 꿈꾸며 한국 대학에 입학할 하지만 실제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참여자들은 중국 대학에서와는 다른 한국대학의 시스템에서의 낯선 경험을 하고, 학업장면에서 한국인 대학생들에게 배제되는 경험으로 소외감을 느꼈다. 이러한 대학생생활에서의 부적응은 낮은 학업 동기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부모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유학생생활은 일부 참여자들을 학업에 나태하게 하여, 심지어 자기조절능력을 상실한 상황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어떤 경우 대학생생활에서의 부적응 사실을 외면하고 회피하기도 하였다.

반성 및 갈등 단계는 참여자들이 학사 경고를 받은 후 자신의 대학생활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기이자 변화에 대한 결심과 변화의 방향을 세우기까지의 좌충우돌하는 시기를 의미한다. 참여자들은 이미 학사경고로 인해 이수학점이 제한이 되고, 심지어 누적된 학사경고로 인해 제적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유학에 실패할 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대학생활 부적응 문제를 회피하고 있었던 자신의 상황이 갑작스럽게 드러나게 됨에 따라 변화에 대한 자극이 되었다. 그래서 참여자들은 새로운 공부 방식을 도입하여 변화를 시도하려고 노력하지만, 습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쉽게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는 또 다시 학업에서의 좌절감으로 이어졌다. 일부 참여자들이 공부 결심은 했지만 학교 수업에 출석하기 어려워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의 실례이다.

재조정 단계는 기대했던 도움을 받게 되어 이를 학업에 적용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기를 말한다. 참여자들은 기대했던 도움을 받게 되거나 기대했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인식의 전환이 재조정되는 단계를 경험한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갈등 단계에서 출석 준수, 과제 제출, 시험 기간 전 공부하기, 공부시간 늘리기 등 학업 행동을 통해서 학업 실패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였지만 쉽게 행동이 변화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학사경고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대처 행동 등을 탐색하기 위해 여러 방식을 통하여 도움의 손길을 받았다. 그러나 일부 참여자들은 기대했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갈등 단계를 다시 경험하게 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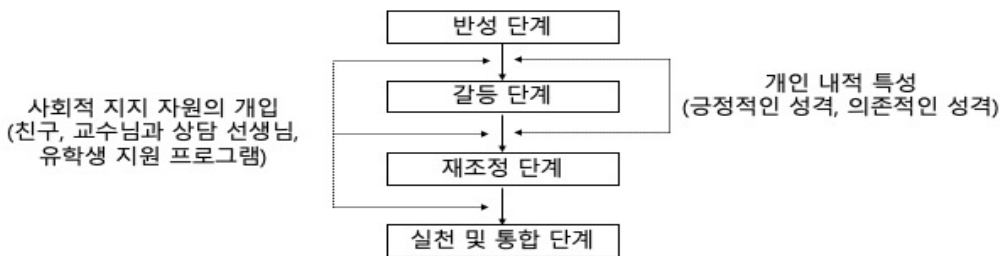
실천 및 통합 단계는 변화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며, 학업에 대한 관점이 전환되어 안정화되어 가는 시기를 의미한다. 참여자들은 학사경고 받은 것이 결국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실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공부 방식과 새로운 공부 태도를 획득하게 된다. 이 때 참여자들은 갈등 단계에서 경험한 시행착오 경험마저 자기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기존의 고등학교에서 혹은 중국에서 해오던 공부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공부 방식과 태도를 획득하게 되고, 학업 동기를 되찾아 다시 진로목표를 세우게 된다.

2) 학사경고 극복의 유형

학사경고를 경험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극복 유형을 중재적 조건에 해당하는 범주들의 속성과 차원으로 조합하여 유형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학사경고 극복 경험의 유형은 ‘도움 추구 유형’, ‘독자적 해결 유형’, ‘미해결 유형’으로 나타났다.

먼저, 도움 추구 유형은 학사경고 이후에 즉각적인 반성을 통해 학업에 대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그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한 후 주변의 사회적지지 자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참여자들은 구체적 양상은 각자 차이가 있지만 극복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극복과정의 특징을 나타냈다. 이들은 학사경고 이후에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던 중국에서의 학업 환경과 한국에서의 학업 환경이 다르다는 사실을 지각하고, 자신의 학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꾸어나가려고 하였다(반성 단계). 이에 새로운 태도와 공부 방법을 시도하였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갈등 단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시행착오를 조력해 줄 수 있는 사회적지지 자원을 빠른 시간 내 모색하였다. 가장 쉽게 조력해 줄 수 있는

대상인 친구들(참여자 1, 4, 5, 6, 7, 8)부터 교수님(참여자 2, 6, 7) 및 상담선생님(참여자 8),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참여자 7)까지 다양하게 활용하여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며, 신속하게 학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재조정 단계). 이러한 노력 덕분에 다른 유형들에 비해 가장 빠르게 학업적응을 이루었다(실천 및 통합 단계). 이 유형을 도표화 하면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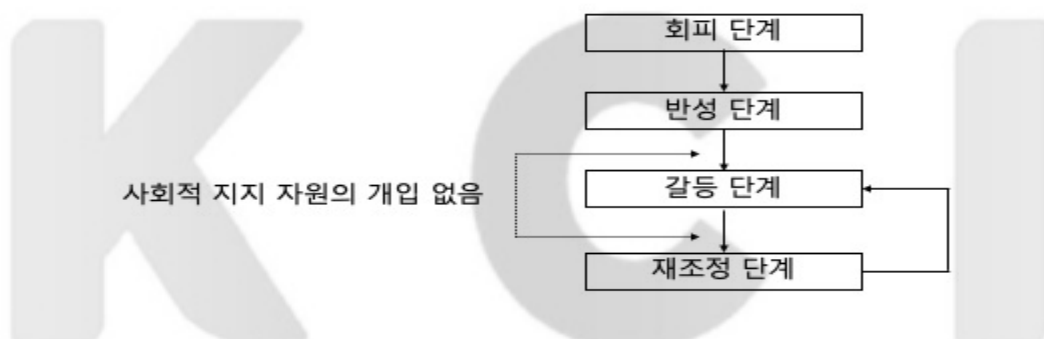
[그림 2] 도움 추구 유형의 극복 과정

독자적 해결 유형은 학사경고를 통해 자신의 학업 부적응을 알게 되고, 회피하는 성격으로 인해 자신의 부적응을 인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인정한 이후에도 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격으로 인해 학업에 적응하기까지 다양한 시행착오를 경험하였다. 참여자 5의 경우는 부정적인 것을 회피하는 성격으로 인해 변화된 학업 환경에 처한 자기 자신의 부적응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성 단계가 깊이 이루어지지 않았다(회피 단계/반성 단계). 이에 내적인 갈등이 유발되고 그 결과 학업 적응 과정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되었다(갈등 단계). 그러나 도움 추구 유형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학습 방법 및 태도를 모색하고 행동으로 옮기지만(재조정 단계) 이러한 방법이 학업 적응에 도움이 되는지 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한다(재조정 단계→갈등 단계). 참여자 5는 문제를 홀로 해결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도움 추구 유형에 비해 학업 부적응을 오랫동안 경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학습 방법 및 태도를 찾아 학업 적응을 하였다. 이 유형을 도표화 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독자적 해결 유형의 극복 과정

미해결 유형(참여자 3)은 학사경고를 통해 자신의 학업 부적응을 인식하게 되었으나, 회피적 반응 등과 같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여 학업 적응을 아직까지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참여자 3은 학사경고에 대해 한국 대학이 중국 대학의 교육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중국인 유학생으로서 어쩔 수 없이 학사경고를 받았다는 식의 회피적 반응을 보였다(회피 단계). 그러나 반복된 학사경고로 인하여 자신의 학업 부적응이 자신의 탓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즉, 자신의 부적응을 인정하기까지 다른 두 유형에 비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반성 단계). 이후 참여자는 자신의 학업 적응을 위해 결심을 하지만 어떤 새로운 학습 방법과 태도로 변화해야 학업 적응을 이룰 지에 대한 방법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더욱이 자신의 학업 적응을 도와줄 사회적 지지 자원이 부재하여 학업 적응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막막함을 느꼈다(갈등 단계).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도 시행착오로 인해 변화에 대한 갈등을 또 다시 경험하였다(재조정 단계→갈등 단계). 이 유형은 다른 유형과 달리 아직까지도 학업 적응을 이루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이 유형을 도표화 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미해결 유형의 극복 과정

IV. 논의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이 학사경고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탐색하고, 학사경고에 이르는 과정 및 극복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8명과 심층 면담을 하여 분석한 결과, 총 57개의 개념, 23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또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중심현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그들이 사용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이 다른 것을 확인하여, 세 가지 특성(도움추구 유형, 독자적 해결 유형, 미해결 유형)을 가진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부터 도출된 결론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사경고를 받은 대부분의 중국인 유학생들은 중국에서부터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유학을 온다는 것이다. 유학 생활을 위한 심리적 준비가 부족하여 자유로운 대학생활에서의 자기 통

제력을 상실하고, 이러한 자기 통제력 상실은 학교에 가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중국인 유학생들은 언어장벽 이외에도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한 상태로 유학을 오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에서 중국과 다른 강의방식, 전문 영어용어 위주의 수업내용, 토론, 조별 발표, 보고서 작성 등 학업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다(신선희, 유문무, 2014; 이수정, 2011; 하정희, 2008). 이러한 어려운 점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유학국가 혹은 유학기관의 명시적이고 암묵적인 관습이나 문화를 충분히 인지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알려졌다(Abe, Talbot, & Geelhoed, 1998).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국가인 한국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학업 준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은 부족하다. 특히, 수강신청 방법이나 수업 방식 등에 있어 중국 대학과 한국 대학의 시스템이 다른 부분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중국인 유학생들의 학업 적응을 어렵게 하였다.

둘째, 수업에서 외국인에 대한 배려를 원하는 중국인 유학생들과 취업 준비를 위해 높은 성적을 원하는 한국인 대학생들의 입장 차이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먼저, 유학 당사자인 중국인 유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인 유학생들은 수업의 그룹 과제 등에서 자신들이 배제당하고, 교수님들께 차별 경험을 받아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자신이 중국인이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인식하게 되는 경험으로 인해 중국인 유학생들은 교수님의 성적평가기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교수의 높은 기대치나 성적 적용 기준 등에 대한 불만에 대한 언급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강이화, 김아영, 김대현, 2007; 임춘희, 2009). 특히, 유학생들은 수업 상황에서 자신들이 언어 문제로 인한 의사소통 능력을 고려받기를 원하며, 수업이해나 평가방법 등에서 특별한 배려가 있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다(Barron, 2002). 이러한 유학생들의 바램은 그 나라 학생들의 입장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자국 학생인 한국인 대학생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한국인 대학생들은 소위 ‘취업 스펙’을 쌓기 위해 치열한 학점 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소통하기 어려운 외국인 유학생들과 같은 팀 활동을 하는 것에 꺼려한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유학생의 경우에는 팀 활동에 소극적이게 되고, 그에 따라 어떤 한국 학생들에게는 그들이 거의 노력하지 않고 점수를 받는 ‘무임승차 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들의 학업 준비도 차이는 중국인 유학생은 물론 한국인 대학생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선행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다(서영인, 김미란, 김은영, 채재은, 2012). 따라서 수업 장면에서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대학생의 입장 차이가 명확하기 때문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적대감을 단순한 개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간주하거나 한국이 문화적 개방성이 부족하다는 설명(박은미, 황병의, 정태연, 2010; 백지숙, 2011)으로는 그들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 결과는 Tinto(1975)의 연구에서처럼 ‘동료와의 상호작용’과 ‘교수와의 상호작용’은 학업지속을 할 수 있게 유지하는 중요한 자원임이 드러났다. 따라서 대학 내 외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서 ‘동료와의 상호작용’과 ‘교수와의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고, 한국인 대학생과의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교수방법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셋째, 반복적인 학사경고를 받은 중국인 유학생들은 자신의 실패를 숨기거나 외면하고 회피하는 행동을 취한다는 것이다. 처음 학사경고를 받았을 때는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거나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학점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자신이 학사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전호정(2017)의 연구에 따르면 학사경고를 반복적으로 경험한 학생들은 자신이 일탈행동을 저질렀으며 사회적으로 낙인 되었다고 지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학사경고 사실을 숨기고 고립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에게 반복적인 학사경고는 숨길 수 있는 낙인(concealable stigma)에 해당된다(Quinn, 2006). 숨길 수 있는 낙인이란 개인의 의지에 따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인 유학생들 역시 개인의 의지에 따라 학사경고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낙인 받은 것을 숨기게 되면, 겉으로는 낙인을 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내적인 고통은 더욱 커지게 되며,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해 점차 사회적 상황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혼자 고립되게 된다. 결국 중국인 유학생들은 위로와 지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낙인에 대한 우려로 필요한 도움을 충분히 요청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회피적 행동은 국내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보고하고 있다(박종향, 이효정, 이선영, 2017; 이정례, 조민경, 2016; 현채승, 2016). 따라서 이와 같은 회피적 행동은 그들의 학업 적응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넷째, 학사경고를 받은 중국인 유학생들은 학업에 있어 지속된 실패 상황을 경험하여 무기력 상태에 빠진다고 보고하였다.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들은 실제로 학습 성과를 내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학습에 필요한 학습 정보 및 학습 전략을 습득하지 못해 학사경고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는 이를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기인하여 극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귀인 오류는 무기력을 심화시켜 학업 동기를 낮추고 또 다시 학사경고를 받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는 Seligman(1975)의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 이론과 유사하다.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들은 학업 실패의 원인을 스스로의 무능력과 게으름으로 탓하여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며, 학업 능력 부족, 전공 불만족,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어려움 등을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식하여 비관적인 생각을 한다(Sage, 2010). 따라서 개인이 학사경고를 스스로 통제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하는 것은 반복되는 학사경고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 하겠다.

다섯째, 중국인 유학생들은 학업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자원을 필요로 한다. 연구 참여자들 중 빠른 시간 내 학업 적응을 달성한 유형은 ‘도움 추구 유형’으로 사회적 지지 자원의 개입이 많았다.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지 자원인 가족, 친구, 교수, 대학 기관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 학사경고를 경험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극복과정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학사경고를 경험한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주변의 지지 자원들의 역할이 중요하여, 이를 통해 학업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게 된 중국인 유학생은 학사경고를 반복하지 않고 비교적 쉽게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권해수, 송수진(201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지원이 극복에 도움 되는 정도가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변의 선배나 친구에게 드러내어 그들의 노하우를 배우거나 그들을 긍정적

인 모델로 삼아 자신의 학사경고 경험을 극복하는 것(주영아, 김영혜, 원수경, 2012)이 필요하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유학생의 학사경고 극복을 위한 상담 및 교육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사경고를 받은 사실을 타인에게 드러내어 학사경고를 극복할 수 있는 필요한 정보 및 노하우를 얻도록 해야 한다. 먼저, 입학 당시 중국인 학생들에게 학교 내에 지지 자원이 가능함을 중국어로 충분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 학사경고를 받게 되면 지도 교수님과 과의 면담 및 교내에 있는 학생생활 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이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각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다수의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은 외국인 대상과 한국인 대상으로만 구분되어져 있다. 또한 외국인 대상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영어로만 제공되어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으므로 중국어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도입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중국인 유학생이 내담을 신청한 경우, 반복적인 학사경고 경험을 낙인으로 지각하지 않고 이것을 주변에 드러내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담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반복된 학사경고를 경험한 학생을 상담할 경우 상담자가 내담자 스스로 실제적 자기를 좀 더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학사경고를 받고 자신의 학업 부적응을 회피하여 학업 이외 활동에 몰두하게 되거나 학사경고의 원인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오히려 반복된 학사경고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학사경고를 경험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상담을 통해 자신이 학사경고를 받은 이유가 자신이 통제 가능한 노력 부족이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학업 행동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변화하고 학업 적응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국인 유학생들의 학업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시기별 사회적 지지 자원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지지 자원의 체계로는 언어교환 프로그램이나 학과 차원에서의 지원인 멘토링(mentoring)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나 언어교환 프로그램은 한국인 대학생의 학점 이수가 목적인 경우가 많아 한 학기 이후 지속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멘토링 프로그램은 한국인 대학생 한 명이 다수의 중국인 유학생을 지원하다보니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사회적 지지 자원 체계를 구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유학생들의 적응 문제들은 유학생생활 초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적응 과정에 따라 유학 전부터 유학 후 귀국 시기까지 이어지므로 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왔다(Lin & Yi, 1997). 따라서 유학 시기 전반에 걸쳐 중국인 유학생들의 학업 적응에 필요한 사회적 지지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는 것이 그들의 학업 적응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러한 시사점과 더불어 이 연구는 다음의 후속 연구들을 제안한다. 첫째, 재한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사경고 외의 중도탈락 위기 상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학사경고를 경험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제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중도탈락에 대한 하나의 예시일 뿐 학사경고 외 중도탈락 위기는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사경고 외 중도탈락 관련 현상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중도탈락 위기를 극복한 재한 유학생들의 극복 이후 적응과정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사경고 경험을 통한 그들의 학습 위기 경험을 탐색하고자 하였으나, 연구 참여자의 범위나 경험의 폭에서 연구 참여자 접근의 제

한점으로 인하여 이론적 포화를 이룰 만큼의 충분한 참여자들을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참여자 선정과 연구 내용에서 보다 확대된 질적 연구를 설계하고, 참여자 개인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 개인이 처한 환경(가족, 사회, 문화적 배경 등) 맥락적 조건들을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 중도탈락의 위기 극복은 개인의 특성과 사회적지지 여부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듯이, 이들의 학교생활 경험과 관련된 보다 다양한 변인들을 설계하여 이를 극복하게 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구조를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유학생 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KCI

참고문헌

- 강순화, 이은경, 양난미(2000). 학업우수 및 학업부진 학생의 학업실태 분석을 통한 대학에서의 학업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221-242.
- 강이화, 김아영, 김대현(2007). 중국 유학생의 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사상연구회, 37, 1-12.
- 고홍월(2017).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다문화 상담 고찰. 가족과 상담, 7, 1-16.
- 교육부(2018).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권해수, 송수진(2016). 남·녀 대학생의 학사경고 극복 경험에 대한 개념도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4(3), 63-72.
- 김명찬(2013). 학업실패를 경험한 서울대학교 학생의 적응과정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경(2016). 중국인 유학생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대학수준 변인의 탐색.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남영옥, 이대형(2016). 학사경고 원인 탐색을 위한 검사도구 개발. 농업교육과인적자원개발, 48(3), 131-151.
- 리통(2009).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적응실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적응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미, 황병의, 정태연(2010).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8(2), 205-223.
- 박종향, 이효정, 이선영(2017). 대학에서의 학업실패 예방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학사경고자의 경험과 어려움 탐색. 열린교육연구, 25, 191-211.
- 백지숙(2011).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개인적 배경,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3), 119-131.
- 상효정(2013). 재한 중국 유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학업 스트레스의 관계: 학업 자아개념의 조절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영인, 김미란, 김은영, 채재은(2012).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체계 강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신선희, 유문무(2014). 재한 중국인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홀리스틱교육연구, 18, 45-69.
- 왕월(2008).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학업 적응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정(2011). 중국인 유학생의 학술적 글쓰기 경험에 대한 FGI연구. 인문연구, 63, 91-120.
- 이용진, 양현정, 조성희(2017). 학사경고생의 특성 변인과 교육적 개입 필요성에 대한 탐색. 교육방법연구, 29, 161-184.
- 이정례, 조민경(2016). 학사경고 반복 대학생의 학업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대학생활연구, 22, 25-45.
- 이지희, 신효정(2017). 대학입학 성적우수 학생들의 학사경고 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웰니스학회지, 12, 183-201.

- 이혜연(2007). 중국 유학생들의 학업자존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훈병(2016). 대학에서 학습부진 학습자 진단을 위한 주요인 분석. *인문사회*21, 7, 653-672.
- 임이랑(2016). 학업 저성취 대학생의 특성탐색 검사 문항개발 및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춘희(2009).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생활문화에서의 스트레스와 적응. *한국생활과학회지*, 18, 93-112.
- 장애경, 양지웅(2013). 대학생의 학사경고 경험과 극복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상담학연구*, 14(2), 995-1013.
- 전보라, 강승희, 윤소정(2015). 학사경고 경험 대학생의 학업적 특성과 집단학습컨설팅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9), 137-160.
- 전재은(2016).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에 대한 대학기관 수준의 결정 요인 분석. *글로벌교육연구*, 8(3), 29-51.
- 전호정(2017). 상위권 대학 학생들의 반복적 학사경고 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경희, 김영순(2018).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교육 서비스 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은이(2009).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 대학생과의 진로관련 적응에 관한 비교 연구-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정체감, 진로태도성숙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2(4), 109-131.
- 주영아, 김영혜, 원수경(2012). 학사경고 여대생의 학업성취 실패 및 지속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포커스 인터뷰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 47-69.
- 주휘정(2010).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대학 학습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교육문제연구*, 36, 135-159.
- 천주명, 권민혁, 한영숙, 임영진(2014). 학사경고자 학업상담(2013년 2학기~2014년 1학기). *인문학연구*, 34, 547-573.
- 하정희(2008). 중국유학생의 대학생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73-496.
- 한덕웅, 이경성(2000). 대학에서 성적우수 학생과 학사경고 학생의 특성. *성균관대학교 학생지도연구*, 21, 33-51.
- 허형원, 손은령(2011). 재한 중국인유학생의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4, 51-66.
- 허혜영(2014). 중국인 유학생의 학업 저해 요인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채승(2016). 대학생의 학사경고 반복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7, 167-192.
- 황현우(2018). 대학생 학사경고자의 학업부진 유형 분류: 지방 사립 A대학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be, J., Talbot, D. M. & Geelhoed, R. J.(1998). Effects of a peer program on international Student Adjustment.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9, 539-547.
- Balduf, M.(2009). Underachievement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dvanced academics*, 20(2), 274-279.

- Barron, P.(2002). Providing a more successful education experience for asian hospitality management students studying in australia: A focus on teaching and learning styles. *Journal of Teaching in Travel and Tourism*, 2(2), 63-88.
- Denzin, N., & Lincoln, Y.(2000). Introduction: The discipline and practice of qualitative research. In: Denzin, N., & Lincoln, Y.(Ed.)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Sage.
- Lincoln, Y. S., & Guba, E. G.(1985). *Naturalistic inquiry*. Sage.
- Lin, J. C. G., & Yi, J. K. (1997).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adjustment: Issues and program suggestions. *College student journal*. 31(4). 473-480.
- Mavis, B. & Doig, K.(1998). The value of noncognitive factors in predicting students' first-year academic probation. *Journal of the Association Medical Colleges*. 73(2), 201-203.
- Quinn, D. M.(2006). Concealable versus conspicuous stigmatized identities. *Stigma and group inequality: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s*, 83-103.
- Sage, T. L.(2010). Academic Probation: How students navigate and make sense of their experienc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Wisconsin.
- Seligman, M. E. P.,(1975). *A Helplessness: on Depression, Development and Death*. San Francisco: W. H. Freeman.
- Strauss, A. L., & Corbin, J. M.(1994). Grounded theory methodology.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273-385.
- Strauss, A. L., & Corbin, J. M.(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Procedures and techniques foe developing grounded theory*. CA: Sage.
- Tinto, V.(1975). Dropouts from higher education: A theoretical synthesis of recent research,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5, 89-125.
- Tovar, E., & Simon, M. A.(2006). Academic probation as a dangerous opportunity: Factors influencing diverse college student's success. *Community College. Journal of research and practice*, 30, 547-564.

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n the Chinese Students' Experiences of Overcoming the Academic Probations at the Korean Universities

Lee, Min-Ji · Kim, Dong-Min · Jin, Sung-Mi (Chung-Ang University)

This qualitative study aimed at understanding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academic probation experiences in Korean universities in order to gain implications for the increasing educational and counseling intervention needs for them in the university. For this purpose, in-depth interviews with 8 participants were conducted and analyzed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approach. Analysis of categories by paradigm revealed that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were experiencing the central phenomenon of 'being ashamed of oneself.' Contextual conditions affecting Chinese students' academic probation experiences have been found to be 'psychological and/or physical frustration'. 'Lack of mind-set' and 'lack of academic skills' are the causal conditions experienced from the academic probations. Participants' action and interaction strategies for the central phenomenon have been shown to 'awareness of self-responsibility'. Interventional conditions that affect action and interaction strategies were 'experiencing the speed differences of academic adaptation depending on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xistence of social support resources.' As passing through this process, participants experienced the results of 'satisfaction with the change' and 'continuous efforts'. In addition, three types of overcoming academic probation were found out as: independence-oriented type, help-seeking type, and unsolved type. The findings suggest that timely counseling and learning support for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s required to support their learning in the university.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expanding the mentoring and support beyond the early stage of enrollment, establishing a social support system for Chinese students' adaptation, and providing them in a timely manner could increase effectiveness of help interventions for their academic adaptation.

[Keywords] Academic probations, Experience overcoming academic probations,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Qualitative study